

불교생활의례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캠페인

추석에는 불교식 상차림 어떠세요?

민족 명절인 추석. 풍성한 가을의 과실을 조상에게 올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에도 복잡한 명절 음식 준비와 차례상 차리기는 불자들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다. 불교식 상차례, 명절행사는 유교식에 비해 간소한 것이 특징이란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특히 불교식 차례는 술대신 차를 이용하고 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꽃, 과일과 같은 공양물로 이를 대신해 번잡함과 수고로움을 덜었다.

최근에는 사찰에서 불교식 차례를 올리고 있어 사찰에서 추석을 지내는 이들도 많다.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식 차례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각 불자 가정마다 불교식 상차례가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지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추석을 맞아 '추석차례를 불교식으로 지냅니다'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조계종 불교생활의례문화원과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추석을 앞두고 펴낸 <불교상차례 안내>를 통해 불교식 상차례와 차례상에 대해 알아보자. 올 추석에는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

노덕현 기자



불교식 가정제사는 이렇게 합니다

불교제례는 크게 가정의 불교식 제사와 사찰의 제(齋)로 나뉜다. 가장 큰 차이는 사찰의 제사는 천도재 방식으로 영가 천도를, 가정의 제사는 추모와 효, 가호를 비는 추선공양 방식인 점이다. 가정에서의 불교제사는 관혼상제의 일상적인 의례를 불교식으로 행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1단계: 영가 모시기

1.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2. 참석자들이 모두 영단 앞에 서서 합장한다.
3. 제주가 삼보를 차례로 불러 모시고, 그때마다 함께 합장반배를 한 뒤 앉는다. 나무상주시방불(합장반배) 나무상주시방범(합장반배) 나무상주시방승(합장반배) 하고 절을 하면서 앉는다)
4. 참석자들은 모두 꿇어 앉는다.
5. 아래의 의식문을 염송하며 영가를 청한 뒤 마지막에 합장 반배한다. "조상님이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영단에 왕립하시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합장반배)"
6. 청혼이 끝나면 모두 일어나서 부처님과 영가를 향해 3배를 한다.

순가락을 씻은 다음 젓가락을 다른 찬에 옮겨 었는다.

10. 모두 함께 3배를 한다.
11. 합장하고 서서 변신진언을 3번 염송한다.

변신진언 "나막 살바 다타다 바로기제 음 삼바라 삼바라 흠"(3번 반복)

12. 헌다를 마치면 자리에 앉는다.
13. 다함께 앉아서 합장하고 아래 헌식소(獻食所)를 염송한다. "조상님이시여! 향을 올리오니 큰 지혜를 드러내시고 등을 밝혀 올리오니 어두운 길 밝혀 가십시오.

고운 꽃을 올리오니 반야의 뜻 피우시고 맑은 차를 다려올리오니 감로다로 목마름 면하십시오.

진품 과일을 올리오니 진리의 향기로운 맛 느끼시고 진수성찬 올리오니 최상의 기쁨으로 마음껏 흥취하십시오.

조상님이시여! 오늘 올리는 이 공양은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오니 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4. 헌식소를 마치면 잠시 2-3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공양 드실 시간을 드린다.
15. 잠시 후 제주는 일어나서 국을 물리고 송농을 올린 다음, 밥을 세 번에 나누어 물에 말아 순가락을 담가 놓는다.
16. 젓가락을 다른 반찬에 옮겨 놓는다.
17. 잠시 후 수저를 거두어 시접 위에 놓고 밥뚜껑을 닫는다.
18. 제주가 분향하고 마지막 차를 올린다.

3단계: 불법전하기

19. 모두 앉아서 경전이나 계송을 독송한다.

4단계: 축원 올리기

20. 경전 독송을 마치면 모두 합장하고 앉은 상태에서 제주는 아래 축원문을 염송한다.

"우러러 조상님 생각할 때 천품이 어질고 성인의 가르침 잘 받드셨으나 세간의 인연이 다하여 남은 몸을 벗고 새로운 삶을 얻으셨습니다.

저희 자손들이 정성 다해 공양을 올리오니 감로의 해탈미로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가문을 빛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고 하루 속히 부처님 나라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20. 경전 독송을 마치면 모두 합장하고 앉은 상태에서 제주는 아래 축원문을 염송한다.

21. 가족 중 한 명이 영가에게 쓴 편지를 읽는다.(생략해도 무방)

5단계: 편지 올리기

21. 가족 중 한 명이 영가에게 쓴 편지를 읽는다.(생략해도 무방)

6단계: 영가 보내기

22. 제주의 안내에 따라 모두 일어나서 3

배로 봉송인사를 올린다.

23. 3배를 마치면 제주는 다음과 같이 염송한다.

"조상님이시여!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법다운 공양 받고 법문 들으셨으니 이제 편안하게 잘 가십시오. 잘 가셨다가 다른 날 도량세워 청하을 때 본래 서원 잊지 말고 다시 오소서."

(반배) 나무아미타불(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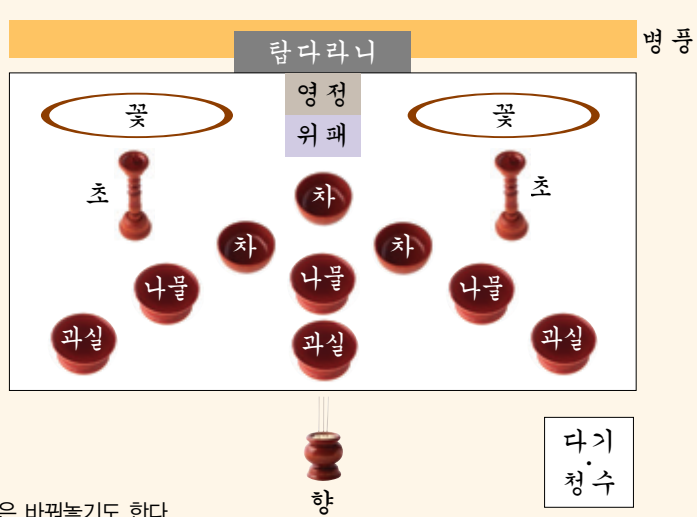
24. 제사상의 음식을 거두고, 상에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 바깥에 내놓는다.(헌식)

25. 제주는 밖으로 나가서 고인을 위해 나무아미타불 염불기도를 하면서 위패를 사른다.

7단계: 제수 나누기

26. 제사를 마치고 나면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영가를 기리고 서로 덕담을 나눈다.

■ 불교식 가정제사 상차림



※밥과 국은 바꿔놓기도 한다.

불교식 추석차례는 추선공양 의미... 남녀 동등한 '가족공동체' 지향해야

고령화,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장례문화와 더불어 일대변환을 맞고 있는 가정제사·명절차례는 언제부터인가 전통방식이 아닌 근본도 없는 제사문화가 각 가정마다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남의 집 제사에 혼수를 두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사문화는 가가례(家家禮)가 됐다.

여기에 더해 종교제사까지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종교 의례절차를 갖춘 제사문화가 신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사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사찰의 기제사와 차례는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천도형식을 띠고 있으며, 가정제사·차례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효(孝)를 실천하는 가정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재가불자들이 사찰이 아닌 가정에서 기제사와 명절차례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 가족간 자칫 종교다툼으로 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 선택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며, 목탁과 경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손사래를 치기가 일쑤다.

굳이 불자라는 이유로 불교식 제사를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자들도 부지기수다.

집안의 가풍이 있고, 어른이 있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을 맞아 명절차례는 불교식으로 지낼 것을 다스리면서 부탁하고 싶다.

그 이유로는 사찰이 아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선대조상·선망부모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호를 비는 추선공양(追善供養)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식 추석차례가 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자로서 관혼상제 등의 일생의례를 불교식으로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차례를 올리는 것은 불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식 제사에서 설·추석과 같은 명절차례는 기제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명절 차례에는 기제사를 지내는 2대 조상을 모두 모셔야 하며, 기일이 아닌 명절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있다.

첫째,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합설로 한번에 지낸다. 영정 혹은 위패는 나란히 모시되 윗대 조상이 서쪽에 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설은 밥과 국, 수저 및 찻잔은 영가의 수대로 마련하고, 나머지 음식은 모두 한가지씩 올린다. 추석차례에는 송편을 추가한다.

셋째, 차례 절차의 경우, 영가모시기 중 청혼을 할 때 여러 대(代)의 양위(兩位) 영가를 모셨더라도 '조상님이시여'라는 호칭으로 함께 정한 후 3배를 한다.

넷째, 차례의식 중 편지 올리기는 수확기인 추석을 맞아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어 인사를 올리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

특히 위패표기로는 佛子(불자)·法名(법명)·姓名(이름)·靈駕(영가) 순으로 쓰며, 영정사진은 밝은 표정의 사진이 좋다.

또한 추석차례의 진설은 육법공양의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 상차림으로 삼색나물·삼색과일, 차(茶), 꽃(華), 송편, 메, 탕 등이다.

다만, 여기에서 육(肉)·해(海)물은 올리지 않아야 하며 절은 3배가 원칙이다.

명절차례 의식은 가정제사 의식이 동일하다. 먼저, 거불(부처님을 모신)·청혼(영가를 모신)·헌다(차와 음식을 올림)·헌식(공양을 권함)·불법전하기(경전독송)·축원 올리기(축원문 염송)·편지올리기(손자·손녀 중)·영가보내기(봉송인사)·제수나누기(법식 나누기) 순으로 진행한다.

의식은 목탁을 치면서 염불식으로 하면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목탁 없이 국어책을 읽듯이 읽어 내려 가는 것이 좋다. 단, 제주는 전체진행에 있어 순서에 따라 사회를 보는 것처럼 진행해 나가면 된다.

따라서 불교식 가정제사와 차례는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장장적인 문화를 탈피하는 등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함께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회향하는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재우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사무국장

사찰등록안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서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